

“업그레이드 된 ‘레드벨벳’ 보여주겠다”

정규2집 앨범발표

팜므파탈 매력 발산



5인조 그룹 레드벨벳이 정규 2집 ‘퍼펙트 벨벳’ (Perfect Velvet)의 타이틀곡 ‘피카부’ (Peek-A-Boo)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 겪은 고초를 털어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음악전문지 빌보드는 최근 레드벨벳과 영상통화로 진행한 인터뷰를 보도했다.

빌보드는 먼저 웬디(본명 손승완·23)를 레드벨벳의 메인 보컬이자 유일하게 영어가 유창한 멤버라고 소개했다.

웬디는 “‘피카부’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팜므파탈 캐릭터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다. 내가 공포영화의 한 장면 속에 있는 것 같았다”면서도 “이번에는 이런 스타일이 ‘루키’ (Rookie)나 ‘빨간 맛’ (Red flavor) 때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카부’의 콘셉트가 미스 테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궁금해한다”며 “레드벨벳의 매력적인 면을 더 잘 보여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빌보드는 레드벨벳이 상급발달

한 ‘레드’ 콘셉트와 성숙한 ‘벨벳’ 콘셉트를 병행하는 그룹이라고 설명했다.

리더 아이린(본명 배우현·26)이 “올해 ‘레드’ 스타일을 아주 많이 선보였지만 ‘퍼펙트 벨벳’에서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벨벳’ 스타일을 보여주겠다”고 한 발언도 함께 소개했다.

빌보드는 이들의 신곡 ‘피카부’가 성숙하고 세련된 사운드를 구현하면서 기존의 명랑한 콘셉트에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고 평가했다.

싱어송라이터 신향, ‘골든 유스’로 데뷔

청춘의 성장통 녹여낸 첫 앨범…27일 발매



싱어송라이터 신향(본명 박신향·24)이 오는 27일 데뷔앨범 ‘골든 유스’ (Golden Youth)를 발매한다.

20일 음반유통사 다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골든 유스’는 청춘의 성장통을 녹여낸 작품이다. 재즈 피아노와 일렉트로닉 사운드, 콘트라베이스와 드럼을 고루 사용해 팝과 재즈, 록 등 장르를 넘나든다.

경희대에서 재즈피아노를 전공한 신향은 앞서 ‘SHE’라는 활동명으로 싱글을 발표하며 활동해왔다.

이번 앨범에는 ‘이스케이프’ (Escape), ‘캡슐’ (Capsule), ‘열음들’, ‘벌레 먹은 사과’, ‘골든 유스’, ‘세이렌’ (SEIREN), ‘메리 고 라운드’ (Merry go round), ‘나 때문에 두근거린다고 말해줘’, ‘니가 내 손을 잡으면’, ‘테이크 오프’ (Take off) 등 총 10곡이 수록됐다.

신향은 앨범 발매를 기념해 다음달 12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마포구 웨스트비릿지 라이브홀에서 콘서트를 연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TV					
	KBS1	KBS2	MBC	KBC-SBS	E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모닝 와이드	00 한국기행(재) 20 세계테마기행(재)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50 예류	30 KBC 모닝 730	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45 출동! 슈퍼헝스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00 당동맹 유치원 30 플라워링 하트 45 방귀대장 뽕뽕이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00 몬카트 15 소피 루비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안녕하세요(재)	50 20세기 소년소녀(재)	10 SBS 뉴스 40 KBC 생활뉴스	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11]	00 국제상 수상작 시리즈 바다의 제국(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20 세계테마기행(재)
[12]	00 KBS 뉴스12 30 영상앨범 산(재)	15 생생정보 스페셜	0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55 특목 보험설계	00 EBS 정오 뉴스 10 미스터리 휴먼 다큐(재)
[1]	00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건강혁명(재)	00 다큐멘터리 3일(재)	00 출발! 비디오 여행 20 헬로키즈	55 닥터 365	40 성난 물고기(재)
[2]	10 월요기획(재)	00 생활의 발견(재)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15 텔레몬스터(재) 25 에어로보	00 뉴스브리핑	30 마루의 어드벤처
[3]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한식(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재)	45 하하랜드 스페셜		00 우주탐험가 젯 15 꼬마기사 마이크 45 부릉! 부릉! 브루미즈
[4]	00 4시 뉴스집중			00 2018 불꽃왕정대 55 닥터 365	15 두다다쿵 55 명탐정 피트 2(재)
[5]	00 KBS 뉴스 5 35 스포터(재) 40 남도지오그래피	00 드래곤에그 30 제보자들(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해피타임 명작극장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10 당동맹 유치원(재) 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45 호기심나라 오기도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밥상 스페셜(재)	30 2TV 생생정보	10 살맛나는 세상	00 영재발굴단(재)	00 톡!톡! 보니 하니 25 플라워링 하트 45 우리 몸 X파일
[7]	00 KBS 뉴스 7 35 리얼토크, 날(재)	50 내 남자의 비밀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TV블로그 토크라크	00 몬카트 15 마루의 어드벤처 30 EBS 뉴스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보24 55 마녀의 법정(재)	3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00 SBS 8 뉴스 35 KBC 8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00 극한직업(재) 50 세계테마기행
[9]	00 KBS 뉴스 9 40 특별대담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프라임
[10]	IMF 20년 대한민국 미래를 묻다	00마녀의 법정(본)	00 20세기 소년소녀	10 사랑의 온도	45 글로벌 아베 찾아 삼만리
[11]	00 KBS 뉴스라인 50 행복한 지도(재)	10 철부지 브로망스- 용따름럽	10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35 메디컬 다큐 7요일
[12]	20 생활의 발견	35 영화가 좋다(재)	40 강가:인도의 영혼	20 나이트 라인 50 앙코르 고향견문록 스페셜	25 세상의 모든 범죄 30 한국영화특선 〈순교자〉(재)

2018년 영화계 흥행 ‘청신호’

‘부산행’의 연상호, ‘내부자들’의 우민호,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추창민, ‘써니’ ‘과속스캔들’의 강형철 등 흥행 감독들이 대거 신작을 들고 귀환한다.

CJ E&M·쇼박스·뉴(NEW)·롯데엔터테인먼트 등 4대 투자배급사들은 최근 내년에 개봉할 한국영화들을 확정했다.

이들 배급사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내년에도 여전히 범죄·스릴러영화가 대세인 가운데 초능력이나 남북관계 등 다양한 소재의 영화들이 관객을 찾는다. 다만, 여성을 앞세운 여성영화는 내년에도 좀처럼 만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상호·우민호·추창민 감독 등 신작 귀환

범죄·스릴러·초능력·남북관계 소재 다양

◇제작비 100억원대 대작…‘염력’ ‘안시성’ ‘신과 함께 2’

내년 2월에 개봉하는 연상호 감독의 ‘염력’은 최대 기대작 중 하나다.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 남자(류승룡)가 위기에 처한 딸(심은경)을 구하기 위해 염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의 코믹액션이다. 최근 공개된 포스터에는 한 남자가 서울 상공에 떠 있는, 예사롭지 않은 모습이 담겼다. 지난해 ‘부산행’으로 한국형 좀비 영화를 개척했던 연 감독이 어떤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대형사극도 여러 편 개봉한다. 김광식 감독의 ‘안시성’은 순제작비만 150억원이 투입된 초대형 사극. 당나라를 상대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안시성 전투의 수장 양만춘(조인성)의 전투를 그린 전쟁 블록버스터다.

지난달 사고로 숨진 김주혁의 유작인 ‘흥부’ (조근현 감독)와 ‘공조’의 김성훈 감독의 신작 ‘장궐’도 내년 관객과 만난다.

2년 전 촬영을 끝낸 사극 ‘궁합’도 드디어 개봉한다. 이승기가 궁합가 서도윤역을 맡아 군 제대 후 처음 스크린에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다음 달 20일 개봉하는 ‘신과 함께: 죄와 벌’의 후속작인 ‘신과 함께 2’ (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도 내년 여름 간판을 내건다. 1편에 등장하지 않는 ‘마블리’ 마동석이 2편에 출연한다.

◇스릴러·범죄영화 대세…‘7년의

밤’ ‘골든 슬럼버’

스릴러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 중 하나다. 내년에도 배급사마다 범죄·스릴러영화를 전진 배치했다.

CJ E&M은 ‘골든 슬럼버’ (노동석 감독) ‘협상’ (이종석) ‘7년의 밤’ (추창민) ‘사바하’ (장재현) 등을 라인업에 포함했다.

강동원 주연의 ‘골든 슬럼버’는 평범한 택배기사 건우가 암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거대한 음모에 빠지는 이야기로, 일본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협상’은 유능한 협상가와 인질범이 대치하는 내용으로, 현빈과 손예진이 호흡을 맞췄다.

당초 올해 개봉할 예정이던 ‘7년의 밤’은 내년 상반기로 개봉이 늦춰졌다. 류승룡·장동건이 주연한 이 작품은 정유정 작가의 동명 인기소설이 원작으로, 영화를 기다리는 팬들이 많다.

‘검은 사제들’의 장재현 감독은 신작 ‘사바하’를 들고온다. 사이비 종교 문제를 조사하던 박 목사(이정재)가 신종 종교와 연관된 ‘사슴동산’을 수사하면서 초현실적인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다. ‘군함도’를 만든 영화사 외유내강이 제작한다.

쇼박스도 ‘마약왕’ ‘돈’ ‘암수살인(暗數殺人)’ 등 3편의 범죄영화를 선보인다.

우민호 감독의 ‘마약왕’은 197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든 마약 유통사건이 배후인 이두삼의 실화를 다룬 영화.

‘민고 보는 배우’ 송강호가 이두삼역

을 맡았다.

‘암수살인’은 감옥에 갇힌 살인범이 숨겨왔던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면서 펼쳐지는 형사(김윤석)와 살인범(주지훈) 간 치열한 심리 대결을 그린다. ‘돈’ (박누리 감독)은 신입 주식 브로커(류준열)가 최고의 작전 설계자(유지태)를 만난 뒤 돈의 유혹에 휘말리는 내용이다.

◇남북관계 소재 잇따라

지난여름 ‘브이아이피’와 다음 달 개봉을 앞둔 ‘강철비’에 이어 내년도 남북관계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잇따라 나온다.

CJ E&M은 ‘공작’과 ‘PMC’ 2편을 선보인다. 윤종빈 감독의 ‘공작’은 안기부 요원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 수뇌부 사이에 은밀한 거래를 감지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첩보드라마다.

하정우·이선균 주연의 ‘PMC’는 판문점 30m 아래 지하 벙커 회담장에서 벌어지는 비밀작전에 한국인 용병(하정우)과 그의 팀원들이 투입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뤘다. ‘더 테러 라이브’의 김병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한 국영화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새로운 전투 액션을 보여줄 예정이다.

강형철 감독이 연출하는 ‘스윙키즈’는 6·25전쟁 중에 북한군 포로와 중공군 포로를 수용한 거제도 포로수용소가 무대다. 탭댄스에 빠진 북한군 로기수를 중심으로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웃음과 감동이 있는 휴먼 대작이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11월 21일(10월 4일)



48년생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60년생 뜻은 훌륭하나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72년생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 84년생 시작이 반이다.



49년생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61년생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73년생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한다. 85년생 행운이 발동하는 멋진 날이다.



50년생 뿌린 만큼 거둔다. 62년생 장고 끝에 약수 둔다. 74년생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가라. 86년생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이 번다.



51년생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 63년생 뒤집어 생각하면 길이 보인다. 75년생 분수를 지키면 곤란할 일이 없다. 87년생 마음만 바쁘지 일의 진척이 없다.



52년생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다. 64년생 감언이설에 속지 말라. 76년생 이성 동료와 갈등을 조심하라. 88년생 타인의 일에 개입하지 말라.



41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53년생 노력하면 된다. 65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77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났다.



42년생 성공을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54년생 꿈은 이루어진다. 66년생 신용을 얻고 승승장구한다. 78년생 분수를 지키면 낭패가 없다.



43년생 협심을 떠난 계획은 망상일 뿐이다. 55년생 되는 일이 없는 날이다. 67년생 싱글은 운명을 만나다. 79년생 평소애 같고 님은 실력을 펼친다.



44년생 행운이 따른다. 56년생 집착은 모두를 힘들게 만든다. 68년생 대의명분 없는 싸움은 절대 금물이다. 80년생 욕심을 버리면 하루가 편안하다.



45년생 막힌 자금사정이 호전된다. 57년생 집안에 경사가 연이어 생긴다. 69년생 잘 찾아보면 항상 기회는 있다. 81년생 오늘은 승승장구하는 날이다.



46년생 근심이 사라진다. 58년생 누가 뭐래도 성공의 열쇠는 노력이다. 70년생 체면이 밥 먹여주지는 않는다. 82년생 금전거래는 다음 기회로 미뤄라.



47년생 하루가 시원하게 뚫린다. 59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71년생 오르고 또 오르면 정상이 보인다. 83년생 공짜 술을 얻어먹는다.